다산포럼

문명 장례식

김진균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부위원장

인간 집단이 저보다 더 날카로운 이빨과 강력한 근육을 지닌 동물들을 압도하며 지금처럼 번성하게 된 동력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문명'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인류학자 마거릿 미드는 부러졌다 다시 붙은 흔적이 있는 대퇴골이 문명의 증거라고 했다.

만오천 년 전 이 뼈의 주인이었던 인간은 대퇴골이 부러졌을 때 맹수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부축해주고 굶어죽지 않도록 먹이를 나눠주는 동료들이 있어서, 대퇴골이 다시 붙을 몇 달 동안 생존할 수 있었다. 걸리적거린다고 다리가 부러진 동료를 버리는 관습이 있어 건장한 젊은이만 남게 된 집단은 단기적 생존에 유리할 수는 있겠으나 번성한 문명에 이르지는 못했을 것이다.

돌덩이를 깨서 석기로 만들고, 흙을 녹여서 쇠로 만들고, 독초에서 약성을 찾아내고, 활시위의 탄성을 발견하고, 씨앗을 심으면 만나게 될 추수를 예견하고, 천체와 계절의 질서를 관찰하며, 방종하는 악당들을 다 잡아 집단이 붕괴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 같은 일들은, 다리가 부러진 사람과 늙고 병든 사람까지 함께 살아가려는 집단이 훨씬 더 잘 해낼 것이다. 그들은 다친 동료를 버리고 다니는 혈기왕성한 부랑자 집단의 약탈도 물리치고 촌락과 도시를 만들어 왔다. 지금 이토록 번성한 인류에게는 다리가 부러졌던 인간과 그를 도운 인간들의 유전자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인류가 문명을 전수하고 확대 재생산하는 데에는 이야기의 상상력이 그 핵심 기능을 담당했다. 맹수가 저기서 달려오는데도 손을 놓지 않은 동료에 대한 눈물의 후일담은 공동체의 자부심과 구성원의 소속감을 높여주는 데에 기여했을 것이다. 공동체의 규모가 커질수록 더 크고 복잡한 이야기의 상상력이 요구된다.

말하고 듣는 이야기로는 더 이상 확대될 수 없는 단계에서 문자를 활용하면서 문명은 비약적으로 확산되었다. 역사 시대 이래 인류는 글을 읽으며 문명의 유산을 배우고 다시 글을 쓰며 문명의 유산을 갱신해 왔다. 읽고 쓰는 활동은 배우고 보태는 활동이며, 다른 말로 교육과 연구 행위이다. 그 사이에서 학문이 형성되고 학교가 만들어졌다.

대구대 사회학과 장례식이 치러진다고 한다. 입학생 미달로 내홍을 치른 대학에서 취업에 유리한 실용학문 위주로 학과 체제를 재편하면서 사회학과의 신입생을 아예 받지 않기로 한 것인데, 현재 재학 중인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는 강좌를 유지하겠다고 했으니 사회학과의 진짜 죽음은 몇 년 뒤에 실현될 것이지만 정황상 이미 시한부 판정을 받은 상태이다. 의식불명에 빠지기 전에 당사자인 사회학자와 사회학도들은 폐과 과정의 문제점을 사회학적 견지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장례식을 구성할 것이라고 하니, 대구대 사회학과는 죽어가면서도 문명이 부여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사실 이 죽음은 대한민국에서 부피를 키우고 있는 문명 퇴행 세력이 조장한 것이다. 애초에 튼실하지 못했던 교육과 연구가 여기에서 더욱 위축되면 어떠한 재앙이 발생할지 모르는 대통령실이 R&D예산을 감축하여 연구원들을 아르바이트와 해외로 떠나게 하고, 의사집단의 저항을 유발하여 의대교육에서 2024년을 적출했다. 교육과 연구에서의 선택과 집중이 인구소멸 및 지방붕괴와 얼마나 밀접하게 닿아 있는지 관심 없는 교육부가 글로컬대학30과 라이즈사업 및 자율전공선택제 등으로 선택받지 못한 지방대와 순수학문분야를 소멸로 몰아붙이고 있다. 강의와 연구의 절반을 감당하고 있는 비정규교수의 기여를 뻔히 아는 대학이 인건비의 1할만 그들에게 배분하는 뻔뻔함 같은 것이 이 흐름의 기원을 이루고 있다. 이들은 모두 문명의 정반대 야만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다.

앞의 비유를 이어가자면 다친 동료를 버리고 온 부랑자 집단이 우리의 동료도 버리라고 강요하고 있는데, 당초 튼실하지도 못했던 우리 집단의 족장이 드디어 우리의 불행한 동료를 죽음으로 몰고 있는 중이다. 천년만년 지금 있는 대학과 학과가 다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래 대응과는 무관한 강압적 구조조정으로 학문적 상상력이 덩어리씩 사라지게 만드는 것은 문명이 아니다. 올해나 내년 대학과 정부의 재정이 흑자로 돌아설지는 모르겠으나, 문명의 상상력이 고갈된 대학에서 누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신기술을 창출하여 국가의 미래를 확장할 것인가. 이대로라면 내후년쯤 우리는 문명 장례식을 치러야 할 것이다.

청춘 톡톡

대학축제 파행, 누가 죄인인가?

박준원
호남대 미디어커뮤티케이션학과 3년

차가운 바람에 코끝이 시려오고 낙엽 밟는 소리가 귀를 간질이면, 가을이 온 것이다. 가을 대학가에는 많은 대학생이 기다리는 행사가 있다. 대학 생활의 백미인 대학축제다. 누군가는 터널 같은 중·고등학생 시절에 대한 보상처럼 느끼기도 하고, 누군가는 '잉여'행위로 느낀다. 또 누군가는 찬란한 청춘을 빛낸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하며, 다른 누군가에게는 부끄러운 기억이 평생의 꼬리표처럼 따라오기도 한다.

대중문화가 크게 성장하기 전 대학축제는 말 그대로 '대학생의, 대학생을 위한, 대학생에 의한' 행사였다. 동기와 선후배, 동아리 친구들, 교수, 너, 나 할 것 없이 대학의 일원으로 자신을 주장하고 끼와 재능을 뽐내며 단합하는 '대동(大同)'의 장이었다. 으레 창작시나 노래, 연극을 선보이거나 캠퍼스 한편에 자신의 미술작품을 전시해 오가는 학우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관람하는 학우들도 다른 학우의 예술혼과 끼를 예찬하고 존중했다. 어설프고 부족해도 '우리의 축제'였다.

이제 대학에서 그런 풍경은 생경한 과거의 전유물이 됐다. 일부 학생들은 여전히 축제에서 동아리 활동의 일환이나 전공의 연장선으로 자기표현을 하고 있지만, 예전처럼 모두가 함께 즐긴다는 느낌을 받기는 힘들다. "왜 나대?", "안 부끄럽나?" 같은 반응도 심심치 않게 현장이나 대학 커뮤니티에서 발견할 수 있다. 많은 대학생들은 '가수는 누가 오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우리의 내면과 우리만의 콘텐츠는 배제된 지 오래다. 항간에는 '아이돌 콘서트로 전락한 대학축제'라는 평가도 들려온다.

모 대학은 축제 예산의 70% 가량을 연예인 섭외에 사용했다고 한다. 연예인 섭외는 대학축제의 명운을 가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타 대학도 비슷한 비율로 연예인 섭외에 투자하고 있을 것이다. 대학생 축제가 연예인들의 비즈니스 현장으로 변질됐다는 오명을 벗으려야 벗을 수 없는 노릇이다. 기현상은 계속된다. 연예인을 보기 위해 행사장에 몰린 재학생들과 지역민의 갈등이 빚어지고, 그로 인해 재학생 석과 외부인 석을 구분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연예인이 잘 보이는 자리의 티켓은 중고거래 사이트에 암표로 매매되기도 했다. 연예인 공연을 촬영해 사진과 영상을 판매하는 잡상인들까지 '우리의 축제'를 타락시켰다.

누가 죄인인가. 개성을 잃어버린 대학생들? 전대(纏帶) 차고 와서 반짝하고 사라지는 연예인과 기획사? 무분별하게 난입한 지역민? 잡상인과 암표상? 축제를 기획한 대학과 학생회? 사실 누구 하나 잘못을 꼬집기 어렵다.

입시와 사교육이라는 제도에 개성을 거세당하지 않고 자신만의 세계를 펼쳐나갈 수 있는 대학생이 몇이나 되겠으며, 더 즐거운 무대를 선사하고 싶어도 물리적 한계로 정성을 다할 수 없는 섭외 연예인들의 사정도 있을 것이다. 비일상성을 경험할 기회가 적은 지역민들에게도 대학축제는 좋은 기회다. 학교의 홍보와 학생의 복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대학과 학생회는 피해자처럼 보일 때도 있다. 잡상인과 암표상도 대학축제가 상업성을 띠지 않았다면 존재가 불가했을 것이다.

다만 조금 더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다. 어색하고 서툴러도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의 표현을 따듯하게 인정해야 한다. 이른바 '잘 나가는 가수'가 아니더라도 비교하지 않고 '우리'만의 즐거움을 찾아가면 된다. 지역민과 자연스레 어우러지는 축제와 무대를 기획하고, 주체적으로 학교와 학생회에 의견을 제시해 여론에 부합하는 축제를 만들어가야 한다. 대학축제에 상업성이 점점 사라지면 암표상도 사라지지 않을까?

숨이 턱 막히는 힘든 여름을 이겨내고 서로의 온기가 필요한 가을이 찾아왔다. 몸도 마음도 나른해지는 가을이 온 만큼, 앞으로의 대학 축제는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모두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대학생의, 대학생을 위한, 대학생에 의한' 축제로 각각의 마음에 자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기 고

장애에 굴하지 않는 용기에 관심을

김용임
광주시의회 의원

지난 2일 한전KPS는 '2024 파리 패럴림픽'에 참가해 메달을 획득한 강선희 선수에게 격려금을 전달했다. 이날 격려금 전달식에는 김홍연 한전KPS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필자와 광주시 장애인체육회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강선희 선수는 2024 파리 패럴림픽에 보치아 선수로 첫 출전해 개인전 동메달과 혼성 은메달을 획득했다.

보치아라는 생소한 종목을 많은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 일반 종목에는 없는 장애인 스포츠의 대표 종목으로 뇌 병변 장애인 등이 참여한다. 여러 종목 중에서도 가장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인들이 참여한다고 해 '장애인 스포츠의 꽃'으로 불린다.

필자는 각종 국내외 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내는 광주 장애인 체육인들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선수 활동을 유지하는 것에 감동을 받았다. 선수들의 가장 큰 고충은 안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전문 장애인 선수로 활동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시의원이 된 후 선수들을 기업에 장애인 체육 선수로 취업시키기 위해 힘쓰고 있다. 그 결과 한전KPS에서 지난 2023년 11월 광주지역 장애인 체육선수 20명을 채용했고, 최근 1명이 더 증원돼 현재는 15종목에 21명의 장애인 선수들이 한전KPS 소속 직원으로 안정적 급여를 받으며 활동하고 있다.

그 수가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한전KPS의 ESG 경영 실천을 위한 강한 의지와 CEO·실무자들의 탁월한 장애 인식, 지역의 미래를 생각하는 지역상생의 정신에서 비롯된 결과다. 이를 계기로 다른 공공기관과 기업들에 롤 모델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지난 4월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등록 장애인은 264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1%를 차지하며, 광주는 6만 9428명(지난해 9월 기준)의 장애인이 등록돼 있다. 또한 등록 장애인 중 88.1%가 후천적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장애를 갖게 돼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후천적 장애를 얻은 사람들이 사고 이후 재활을 마치고 사회에 복귀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정과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 도입이 30주년을 맞이했다. 올해 기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은 장애인 의무 고용 적용 대상이며, 100인 이상의 사업장은 일정 비율의 의무 고용(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3.8%·민간기업 3.1%)을 지키지 못하면 고용부담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2023년 장애인 고용률은 2.92%(24년 고용노동부) 밖에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저조한 고용률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기관·기업의 적극적인 실천 의지와 장애인 지원 기관들의 다양한 직군 발굴이 요구된다. 그와 더불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모범적 기업과 기관에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좋은 제도와 정책이 더 도입돼야 한다.

장애인 체육의 시초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부상을 당한 군인들의 재활에서 시작해 오늘에 이르게 됐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후천적 장애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장애인 체육의 역할은 당사자의 신체적 건강 회복과 더불어 사회통합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장애를 갖게 되면서 제2의 삶을 체육 선수로 살아가는 많은 장애인들이 안정적으로 취업해 장애인 체육 선수로서 전념할 수 있는 세상을 꿈꿔본다. 그를 위해 공공기관·기업에서는 적극적인 장애인 채용을, 장애인 지원 기관에서는 다양한 직군 개발과 채용 기업 발굴에 힘쓸 필요가 있다.

격려금 전달식에서 강선희 선수는 "난 나 자신을 위해서 했던 일인데 이렇게 크게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저와 같은 많은 장애인 선수들이 같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이 말은 필자의 막중한 책임감과 더불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말해줬다고 생각한다.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광주시부터 장애인 고용 확대에 나서야 한다.

끝으로 30일까지 펼쳐지는 제44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광주 선수들을 응원하며 모든 선수들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를 응원한다.

社說

소각장 희망지에 약속한 지원 외 인센티브를

광주시의 생활 쓰레기소각장(자원회수시설) 입지 공모에 5개 자치구 가운데 3개 자치구의 6곳이 참여해 입지선정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의 쓰레기 소각장 입지 공모 사업은 그동안 혐오 및 기피 시설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던 지역사회 분위기가 최근 수년 새 상당 부분 희석돼 무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막상 행정 절차가 진행될라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이 극렬하게 반발하는 등 추진에 제동이 걸려 사업이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광주시가 광역시 최초로 '선(先) 자치구 신청, 후(後) 광주시 사업 추진' 방식을 도입해 행정절차가 이제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시는 최근 생활 쓰레기소각장 시설 후보지 3차 공모에 서구 1곳, 남구 1곳, 광산구 4곳 등 총 6곳이 신청함에 따라, 신청지를 대상으로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입지선정 절차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기존 시 주도의 입지 선정 방식이 주민 의견 수렴 등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주민 생활과의 밀착성을 고려해 자치구 주도의 신청으로 방식을 바꿨다. 입지 선정 방식 변경 이후, 소각장 후보지 인근 주민들의 의식 조사 결과 찬성 비율이 54%로 기존의 36% 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쓰레기소각장 입지 선정 관련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자치구들은 1개 이상의 적정후보지를 제출하고, 광주시는 최종입지 자치구에 편익시설 600억 원 이상과 특별지원금 500억 원 지원을 약속했다. 광주시는 적정후보지를 제출하지 않은 동구와 북구에 협약대로 패널티를 물려야 할 것이다. 쓰레기 소각장은 온 시민이 기피하면서도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 만큼 피해를 감수한 최종 후보지에는 이미 약속한 편익시설 및 특별지원금 등 총 1100억 원 규모에 추가 지원을 함이 마땅할 것이다.

혹사당하는 구급대원, 격무 완화책 절실하다

의정갈등 장기화로 광주시 119구급대원의 업무 부담과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하다.

광주시 등에 따르면 올해 2~9월 기준 광주소방안전본부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처리한 상담 건수는 2만 8590건으로 지난해보다 32.5% 증가했다. 병원 진료 전 질병상담 건수는 5621건으로, 전년 동기(2223건) 대비 152.9% 뛰었다. 응급처치 건수도 지난해 8899건에서 1만 2294건으로 38.2% 늘었고, 대원들의 현장활동 1회 당 소요 평균시간도 지난해 27.3분에서 올해 28.3분으로 증가했다.

119 구급대의 활동지수가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한 것은 의정갈등의 후유증으로 해석된다. 대원들이 상급병원으로부터 환자 수용불가 통보를 받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병원 선정 과정에 어려움이 따르고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것이다. 시민도 질병 증상과 대처법 등을 상담하기 위해 병원이 아닌 119 구급대에 도움을 호소해 상담건수도 크게 뛰었다.

구급대의 고질적인 업무편중도 대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지난 2~9월 기준 광주소방안전본부 현장대원 1114명 중 구급대원 297명(26.7%)이 전체 출동 건수의 76.2%를 담당했다. 월산센터의 경우 한 팀당 평균 출동 건수가 680건에 달했고 대촌센터(한 팀당 136건)나 빛그린센터(113건)와는 5배 이상 차이가 났다. 최일선에서 시민 생명을 지키는 구급대의 만성적인 인력난과 업무편중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의정갈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고질이다. 구급대원의 피로가 가중되고 업무부담이 증가하면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정부와 광주 소방당국은 소방력 배치 기준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바탕으로 구조·구급 인력 확충에 나서야 한다. 이들의 사기진작과 재충전을 위한 복지대책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

無等鼓

진실을 향한 걸음

"…코로나 해제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할 거라는 것을 예상하고도 왜 인파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오후 6시 34분부터 압사사고가 날 것 같다고 하는 수많은 신고에 왜 대응하지 않았습니까? 현장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아무런 연고지 없는 병원에 왜 뿔뿔이 흩어놓았습니까? 여전히 저희 유가족에게는 이런 대답 없는 질문들이 수없이 많습니다."(고 이해린 아버지 이종민씨)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 누가 없었는지, 그곳을 누가 통제하고 관리했어야 하는지, 그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는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없었습니다."(고 이지현 어머니 정미라 씨)

지난 27일 광주시 남구 백운광장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2주기 광주·전남 추모문화제'. 추모 행사는 희생자 159명을 기리고자 오후 1시 59분에 시작했다. 추모제 테마는 '진실을 향한 걸음,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었다.

2년 전 어처구니없는 참사로 인해 자식을 가슴에 묻은 아버지와 어머니는 단상에 올라 울분을 터뜨렸다. 희생자 지인들도 준비한 편지글을 낭독하며 눈물을 흘렸다. 유가족들은 그동안 삼보일배와 천막농성, 단식 투쟁, 삭발 투쟁 등을 하며 진실 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등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그 결과 어렵게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과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발족했다.

29일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았다. 앞으로 특조위가 '진실을 향한 걸음'을 차질없이 내딛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늘의 별이 된 159명의 희생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결과물을 도출해야 한다. 다시는 자식과 가족을 사회적 참사로 인해 잃어서는 안 된다는 유가족의 외침은 깊은 울림을 남긴다.

"우리가 재발방지를 하지 못한다면 지금 미래 세대들이 사는데 이 나라는 또 다른 참사로 우리 아이들 곁에 또 다가올 것입니다. 저처럼 울부짖는 엄마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다시는 저처럼 이런 아픈 엄마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송기동 예향부장 song@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 편집인 崔宰豪 논설실장 蔡熙鍾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24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4	예향부 220-0692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경제부 220-0648	여론매체부 220-0661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제2사회부 220-0680	디지털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